

이재명·김부겸 회동… 당내 통합·혁신 ‘한 목소리’

김부겸 “이낙연 만나라”
“준연동형 지켜야” 당부
이재명 “많은 의견 수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20일 오전 회동을 갖고 당내 통합과 혁신에 한목소리를 냈다.

김 전 총리는 이 대표에게 신당 창당을 선언한 이낙연 전 대표를 만나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이 대표는 “충분히 이해하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회동은 낮 12시 서울 중구 한 식당에서 1시간30분간 진행됐다.

회동 후, 권철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김 전 총리께서 당내의 현안에 대해 말씀하셨고, 범민주진보진영 대표로서 이재명 대표가 할 일이 많다고 역할도 당부했다”고 전했다.

김 전 총리는 이 자리에서 “이 전 대표를 비롯해 많은 분들을 만나 당 통합을 위해 충분한 대화를 나누고 수습방안도 찾아보기 바란다”고 이 대표에게 당부했다.

그는 준연동형과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두고 생긴 당내 논란에 대해선 “준연동형 비례제가 다양성과 비례성을 확보하기 위



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부겸 전 총리가 20일 서울 한 식당에서 오찬 회동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한 방안들인데 그 기본적 취지는 지켜지는게 좋겠다”며 “범민주진영 대표자로서 이런 부분(선거제 개편 등)에 대해서도 의견 수렴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다양한 의견들을 더 수렴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현재 당 지도부는 병립형 회귀에 무게

를 두는 분위기다.

김 전 총리는 “당의 단합, 그리고 혁신으로 가는 모든 노력들을 이 대표가 해달라”며 “분열이 있으면 총선에 큰 악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어선 안 된다. 과거 야권 분열 시 선거 패배의 아픈 기억들이 있다”고 당의 단합을 강조했다.

이날 회동 분위기에 대해, 권 수석대변

인은 “이런 말씀을 이 대표가 경청했고, 당의 단합과 총선 승리를 위해 당을 거느린 김부겸 전 총리의 많은 역할도 요청드렸다”고 전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가 이 전 대표를 직접 만나겠다는 등 구체적 발언이 있었는지에 대해선 “당 단합과 총선 승리를 위해서라면 산이든 강이든 건너지 못할

게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 작은 차이를 넘어서 큰 길에서 함께 만나기 위해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취지”라고 답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또 이 전 대표가 강조했던 ‘민주당의 구체적 변화’ 실현 가능성 질문에는 “의견을 더 모으고 구체적으로 어떤 의견을 내는 분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구체화할 거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앞서 김 전 총리는 식사 전 모두발언에서도 이 대표에게 통합과 민주진보진영에서의 ‘큰’ 역할을 주문했다.

김 전 총리는 “민주당이 단순히 민주당만의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범민주·범진보 세력 전체를 아울러서 어려운 난국을 타개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함께 통합하고 안정적으로 그리고 쇄신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가감없이 전달하겠다. 여러 실행이나 깊은 고민은 대표나 당에서 해주리라 믿는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이 져야 할 책임이 크다. 힘을 모으고 또 한편으로 새로운 변화들을 통해 국민들에게 희망을 만들어드리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라는 생각이 든다”며 “부족한 것도 많고 해야 할 일도 많은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 같이 가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양부남 “공정 사회, 더 큰 광주” 서구를 출마선언

‘공고 출신 고검장 신화’의 주인공인 양부남(사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이 20일 “공정한 사회, 더 큰 광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새로운 도전에 나선다”며 내년 총선 광주 서구를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양 위원장은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에 대한 정치적 탄압, 당대표에 대한 부당한 수사과 사법적 압박에 대응하면서 ‘공정과 상식’을 무너뜨리는 윤석열 정부에 분노하고, 수사기관과 사법부의 선택적 정의를 확인했다”며 “바로 이것이 제가 정치에 뛰어든 이유”라고 밝혔다.

양 위원장은 “관행적인 수사 행태를 개선해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과 판결이 국민상식과 동떨어지지 않도록 사법개혁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



했다.

또 “지금 대한민국은 윤석열 정부의 무능함과 국제정세의 혼란이 더해져 어느 때보다 큰 위기에 처해 있다”며

“현 정부의 폭주를 막고 대한민국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선 민주당의 정권 재창출이 필요하고, 총선에서의 압도적 승리로 초석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담양 출신으로 담양공고, 전남대 법대를 거쳐 사시 31회로 법조계에 뛰어든 양 위원장은 그동안 부산고검장, 광주지검장, 대검 형사부장 등을 역임한 뒤 지난 2020년 27년간의 검찰생활을 마무리하고 민주당에 입당, 이재명 대선후보 법률지원단장에 이어 민주당 법률위원장으로 활동중이다.

김은지 기자

정준호 “정권·인물·세대 교체” 복구갑 출마선언

‘젊은 법조인’ 정준호(사진) 변호사가 20일 “정권 교체와 인물·세대 교체로 호남 정치 부활에 앞장서고 낙후된 복구의 가치를 두 배로 만들겠다”며 광주지역 대표 거대선거구인 복구 갑 총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정 변호사는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정치적 기반을 자부해온 광주와 호남이 변방으로 밀려나 무력해졌고, 말도 제때 못하고 잘 싸우지도 못한 채 존재감을 상실한 현역 의원들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와 불신은 이미 가득찬 지 오래”라며 “호남정치 혁신의 길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2016년 이후, 꾸준히 한 우물만 파온 그는 “‘눈 떠보니 후진국’, ‘대통령이 너무 자주 귀국하는 거 아니냐’ 등 국민들의 조롱 섞인 말들은 온몸으로 정치를 하는 저에게는 뼈를 때린다”며 “내년 총선은 민생



의 바로미터이자 비정상 대한민국을 돌려놓을 기회”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복구의 청사진으로 서방천 생태

하천 복원, 중흥·신안동 상권 활성화, 서방시장과 문흥IC를 잇는 저심도 지하도로 개설, 전남대 앞 도심형 공동캠퍼스 조성 등을 제시한 뒤 “복구의 미래, 복구의 지도를 확 바꿔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광주 각화초·중, 동신고, 서울대 법대를 거쳐 법조인이 된 그는 민주당 광주시장 윤리심판위원과 복구갑 지역위원장, 이재명 대선 후보 광주선대위 조직3본부장 등을 지냈고, 현재 새대인 흥남순변호사 기념사업회 사무총장, 공간포럼 호남본부 상임대표로 활동 중이다. 2001학년도 수능 만점자로도 잘 알려져 있다. 김은지 기자

지역의사제·공공의대법, 민주당 주도 복지위 통과

김원이 “전남권 의대 신설도 추진”

의대 정원 일부를 의료 취약 지역에 의무적으로 근무하게 하고, 각 지역에 공공의대를 설립하는 내용의 법안이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 제정안을 재적 22명 중 찬성 13표, 반대 2표, 기권 7표로 가결했다.

제정안은 의대 정원 일부를 지역의사 선발 전형을 통해 선발해 일정 기간 의료 취약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하게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지역간 의료 인력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지역의사제가 적용되는 지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하게 하며 지역의사의 범위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로 한정한다. 또 졸업생의 경우 10년간 의료 취약 지역 의무 복무를 조건으로 의사 면허를 발급하도록 했다. 의무 복무를 중도에 그만둘 경우 의사 면허를 취소하고 재교부도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국민의힘은 지역의사 양성과 의료불균형을 해소하자는 법안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조항이 있는 만큼 심도 있는 논의가 선제되어야 한다고 입장이다.

지난 18일 복지위 제1법안소위에서 민주당 주도로 처리된 데 대한 비판도 나왔다.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 소위

원장의 일방적 회의 진행으로 날치기 처리된 이 법안은 절차적 정당성을 전면으로 위반했다”며 “지역 의사제는 민주당의 정략적 의도가 담긴 실패가 자명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선 ‘지역의사제법’과 함께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운영에 관한 법안도 민주당 주도로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각 지역에 공공의대를 설립해 지역 내 의료 인력을 확충하는 내용이다.

‘지역의사제법안’을 대표발의한 김원이 민주당 의원(목포·사진)은 이날 “붕괴 직전의 지역 의료를 살려내고,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의대 정원 증원과 함께 지역의사제, 의대없는 지역인 전남권의 의대 신설이 동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국힘 ‘한동훈 비대위’ 출범 사실상 가닥… 주말께 지명

여당 원로도 이견 없어

국민의힘 원로들은 20일 한동훈(사진) 법무부 장관의 비상대책위원장 추대에 큰 이견이 없다는 입장을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에게 전달했다.

이에 따라 ‘한동훈 비대위’ 출범이 사실상 가닥을 잡았다.

유홍수 상임고문은 이날 상임고문단 회의를 마친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큰 이의는 없는 것 같은데, 여러 걱정하는 이야기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유 상임고문은 “새로운 것이 오히려 사회의 가치처럼 보이는 시대이기 때문에 경험이 그렇게 중요하겠느냐. 한 장관은



이라는 관계는 아주 신뢰가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바른 소리를 할 수 있다”며 “민심을 잘 전달하고 대통령이 받아 들일 수 있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염려하는 것만큼 당정이 수직관계로 가진 않을 것이라는 얘기도 있었다”고 말했다.

목요상 상임고문은 “정치판에서 때 묻은 사람보다는 오히려 무색 투명한 한 장관이 비대위원장을 맡게 되면 젊은 MZ세대도 많이 호응을 할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다.

회의에서는 비대위원장보다는 선대위원장을 맡겨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고 한다.

신영균 상임고문은 “선대위원장이 더 좋지 않느냐. 비대위원장은 경험이 있는 사람을 시켜야 한다는 얘기도 있었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윤재옥 권한대행이 이르면 이번 주말께 한 장관을 비대위원장으로 지명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윤 권한대행은 “오늘 사실상 의견 수렴 과정은 마무리할까 한다”며 “이제 여러가지 고민과 숙고를 통해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서울=김선욱 기자